

블랙박스에 사라진 4분 ‘셋다운’ 됐나

12·29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사고 직전 4분간 기록 안 돼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상황”
179명 희생 원인조사 난항 우려



1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희생자 유류품 및 잔해를 찾기 위한 추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던 사고기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고조사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주목됐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79명이 희생된 참사 원인 조사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기사 6면〉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가 충돌하기 4분 여 전부터 두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조위 조사관 2명의 입회하에 자료 인출과 분석이 이뤄졌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9분부터 블랙박스에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이다. 사고기가 로컬라이저 덕분에 충돌하기 직전 4분 여다.

당시 기체 상황과 조종사들이 어떤 비상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기록이 핵심인데 관련 내용이 모두 사라져 버린 셈이다.

사고 당일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사는 사고기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경고했고 기장은 2분 뒤인 8시 59분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긴급조난 신호)를 선언하고 복행을 통보했다.

복행은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것을 말한다.

사조위는 지난 4일 CVR 녹취록 작성을 완료했을 당시 4분간 내용이 저장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조위가 애초 국내에서 자료 출력이 어려워 기존에는 FDR만 미국으로 보내려 했으나 CVR도 같이 미국으로 보내 이윽다.

항공 전문가들은 FDR과 CVR 모두 저장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기 전력계통이 모두 꺼지는 일명 ‘셋다운’ 상태를 추정하고 있다.

사고기의 전파 기반 항공기 추적 시스템(ADS-B) 역시 8시 58분 50초를 끝으로 정보 송출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 셋다운으로만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조위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다른 자료 등과 모든 방안을 마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블랙박스 미저장)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CVR과 FDR 자료는 사고 조사에 중요하지만, 조사는 (두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 조사관은 13일 오후 FDR·CVR과 분석 자료 등을 가지고 귀국한다.

사조위는 “향후 현장조사 완료 시점, 공청회, 필요할 경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 탄핵심판 시작...尹 “14일 불출석”

변론기일 14·16일 등 5회 지정
尹측 “신변 안전·불상사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적정할 때 출석을 공언했던 윤 대통령은 신변안전과 경호문제 등을 내세워 이날 헌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4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처음으로 열린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이달 14·16·21·23일과 오는 2월 4일로 5회차를 미리 지정했다. 매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탄핵심판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 평의도 매주 한 차례씩 열린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추가 기일을 바로 지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 18일 만에 첫 변론(2004년 3월 30일)이 열려 5월 14일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접수 25일 후 첫 변론(2017년 1월 3일)이 진행돼 두 달 여 변론이 이어진 뒤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내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돼 첫 변론까지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최소 180일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불참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

尹 연봉 2억6258만원
직무정지에도 받는다
한덕수도 그대로 지급

‘12·3 계엄’ 사태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2억 6258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된다.

대통령 보수 인상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는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2억 5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183만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2억356만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차 변호사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 위원이 인정한 조사내용을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수처,尹 체포명장 이변 주중 집행할 듯 ▶2면

페퍼스, 현대건설 쥐고 창단 첫 3연승 ▶18면

동네서점 천국 - 런던 & 헤이 온 와이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